광주교육청 또 관광성 외유 '빈축'

초·중·고 학생생활지도 교사 120명 대상

'카지노 천국' 마카오 등 연수 일정 포함

교장단 선심성 중국 연수로 물의를 빚었던 광주시교육청이 이번엔 학생생활지도 교사들을 대표적인 위락 도시인 홍콩·마카오 등지로 관광성 해외연수를 보내 빈축을 사고 있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여름방학을 맞아 광주지역 일선학교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국외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초·중학교는 이날부터 8일까지 중국 심천·홍콩·마카오 등지를, 고등학교는 11일부터 14일까지 일본 홋카이도를 방문한다.

이번 연수에는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등 교육청 관계자와 일선 초·중·고교 생활교육·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 120명이 참여한다. 예산은 총 1억2000만원으로 1인당 125만원에서 145만원하는 경비 중 100만원은 교육청이, 나머지는 연수 참여자들이 자부담한다.

하지만, 연수 일정이 대부분 관광성이어서 교원 연수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참가자들은 첫날 중국 심천에서 민속쇼를 관람하고, 둘째날은 홍콩의 윙타이신 사원·헐리우드로드·켓 스트리트·빅토리아피크 등에서 관람과 쇼핑을 한다. 셋째날은 마카오의 피셔밴즈와프·성바울성당유적·마카오타워 등을 관람한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카지노를 갖춘 베네시안 마카오호텔 관람도 일정에 포함돼 있다.

현지 학교와 교육기관 방문은 구색맞추기용에 그쳐 '학교현장의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교육현장 탐방'이라는 연수 목적을 무색케 하고 있다.

정미경 광주·전남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 사무국장은 "생활지도를 위한 해외연수를 하려면 제대로 된 나라에 가서 제대로 하고 와야지 카지노 천국인 마카오에 가서 무엇을 배운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스마트폰 중독 등 학생생활지도가 갈수록 어려워져 교사들이 업무를 기피함에 따라 교육청이 이들을 위로·격려하는 차원에서 매년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다"며 "연수기간 동안 현지에서 학생지도와 관련한 워크숍과 분임토론 등을 하고, 나흘간의 교류를 통해 연수 이후 학교 생활지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피서도 하고 공연도 보고… 5일 오후 광주지하철 금남로 4가역 만남의 광장에서 문화공연이 펼쳐지자 수십여명의 노인들이 더위를 잊은 채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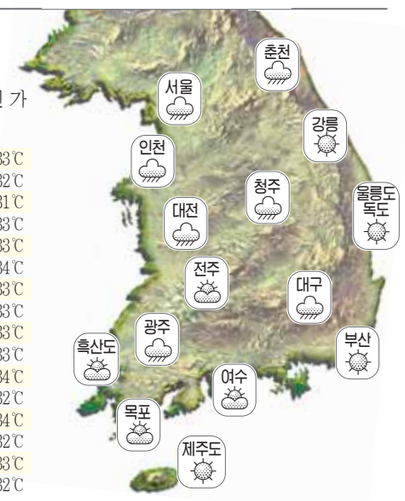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45분 / 해짐 19시 31분 — 달뜸 05시 02분 / 달짐 18시 48분

야외활동 조심

일부 지역 폭염주의보 내린 가운데 불쾌지수 높겠다.

광 주	비	25/33℃
목 포	구름많음	26/32℃
여 수	구름많음	26/31℃
나 주	비	24/33℃
완 도	구름많음	26/33℃
구 례	비	24/34℃
강 진	구름많음	25/33℃
해 남	구름많음	26/33℃
장 흥	구름많음	25/33℃
순 천	비	23/33℃
영 광	구름많음	25/34℃
진 도	구름많음	26/32℃
전 주	구름많음	26/34℃
군 산	구름많음	25/32℃
남 원	비	24/33℃
흑산도	구름많음	26/32℃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먼바다	남~남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m
먼바다	남서~서	0.5~1.0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불쾌지수
위험	매우높음	매우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먼바다	남~남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먼바다	남~남서	0.5~1.5m

	밀물	썰물
목포	02:03 13:54	07:25 19:19
여수	08:43 21:13	02:46 14:46

◇주간날씨 —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7(수)	8(목)	9(금)	10(토)	11(일)	12(월)
날 씨						
최저/최고	35/34	25/34	25/34	25/34	25/33	25/33

광주·전남 본격 '불볕더위'

대부분 지역 폭염주의보…노인 등 외출 삼가야

6일 오전 11시를 기해 광주를 비롯한 전남지역에 폭염주의보가 추가 발효되는 등 장마 후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5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곡성, 구례, 화순, 광양에 이어 6일 오전 11시에 광주, 나주, 담양, 장성, 보성, 순천,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영암, 무안, 함평, 영광 등 모두 14개 지역에 추가로 주의보가 발효된다.

이로써 5일에 이어 사실상 광주·전남 전역인 18개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다.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야외활동 자제를 요청했다. 기상청은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낮 12시~오후 5시 사이에는 냉방이 가능한 실내에 머물러 달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보호자는 보호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말라며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증세가 보일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빚더미 대학생' 구제

정부, 고금리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확대

정부가 고금리 대출로 빚더미에 앉은 대학생들을 구제하고자 연내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생의 20%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다 고금리 대출의 덫에 빠진 경우도 대학생 대출자의 3.7%에 달하기 때문이다.

대학생의 한달 평균 지출은 등록금까지 포함하면 110만원을 넘어 부모들의 부담도 심각한 수준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교육부와 함께 한국장학재단법을 개정, 학자금 대출 채무 조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7월부터 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대출 연체 채권 중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상각채권 115억원을 매입해 채무조정에 이미 들어갔는데 비상각 채권까지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상각채권만을 대상으로 하면 혜택을 보는 대학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최근 일반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에게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상환 유예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일반 학자금 특별상환 유예조치는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대출자에게 상환 일정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것이다. 신청요건을 연체 6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함에 따라 2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됐다.

신용회복위원회도 최근 '청년·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대상 채무를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받은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고금리 전환대출을 지원받지 못한 '청년층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학생으로 간주,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순경 4262명 선발…경찰행정학과생 특채

경찰이 순경 4262명을 새로 선발한다. 선발 인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경찰청은 2013년 2차 순경 채용에서 4262명을 뽑기로 하고 12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순경 일반 공채는 남자 2534명, 여자 588명이며 경찰행정학과 특채는 남녀 합계 560명이다. 전·의경 특채는 460명,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는 101경비단은 120명을 각각 선발한다.

지역별 채용 인원은 서울이 1110명으로 가장 많고 광주 60명(남자 40명, 여자 10명, 경찰행정학과 특채 10명), 전남 164명(남자 90명, 여자 19명, 경찰행정학과 특채 35명, 전·의경 특채 20명), 경기 1090명, 부산 315명, 인천 290명, 경남 231명, 충남 229명, 대구 180명 등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